

클린턴 정부 등장 후 미국은 매년 4%가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구가했다. 그렇다면 수십년간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미국 정부의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은 '마이더스의 손'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기술 중심의 첨단산업이 키워낸 신경제였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핑크빛 환상에 들뜨게 했던 신경제의 화려한 빛은 이제 조금씩 퇴색하고 있다. 신경제의 최대 수혜자이자 첨단 기술 경제의 진양인 미국 경제가 현재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신경제는 과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줬는가

최근 불거져 나온 신경제 논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그 갈래의 한쪽에는 신경제의 거품, 과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신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첨단경제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신경제는 현재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 이 책의 지은이 또한 신경제의 빛보다는 신경제의 눈부신 비약 뒤에 숨겨진 그늘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경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가. 20여년 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줬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줬는가. 이것이 바로 지은이가 문제 삼는 신경제의 뇌관이자 이 책의 화두다.

이 책의 지은이 로버트 라이시는 잘 알려진 것처럼 클린턴 행정부 제 1기 노동부 장관이며, '현대판 국부론'으로 불리는 《국가의 일》(남경우 외, 까치)을 저술한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자다. 그렇다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잘 나가던 미국의 장관이 하루아침에 사임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던 그가 말이다.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던 어느 날, 출근하는 그에게 막내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기를 깨워달라고 부탁한다. 조금 엉뚱한 아이의 부탁에 이유가 궁금해진 그는 "나는 너무 늦을 것 같아 내가 집에 올 때쯤이면 아마 곤히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아이가 말한다. 단지 자신은 아빠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다고.

물론 가족과 좀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가 사임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 맞이한 사소하지만 낯선 풍경은 그에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과 삶을 꾸려가는 것,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도록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갑작스런 사임은 상종가를 구가하던 신경제 아래서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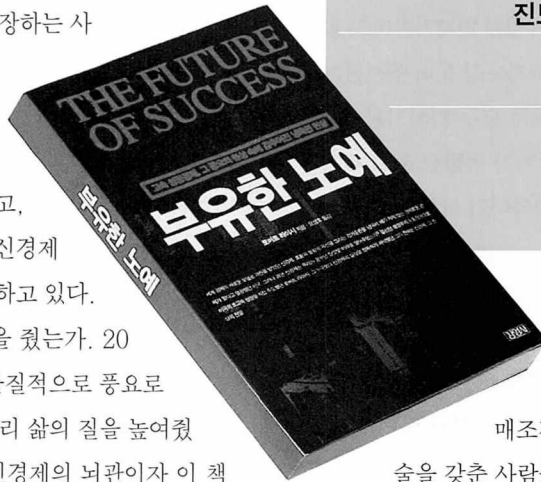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장관으로 미국의 성장을 직접 주도했던 지은이는 이 책에서 고속성장 경제, 그 풍요로운 환상 속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을 파헤친다. 지은이는 신경제가 가져온 풍요로움만큼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매달리게 됐으며 '생계를 꾸려갈 것인가' 아니면 '삶을 꾸려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는다. 이런 난제를 풀 방안으로 삶을 단순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책갈피 산책

《부유한 노예》

진보적 경제학자가 분석한 신경제의 빛과 그늘

로버트 라이시 지음 | 오성호 옮김
김영사/A5신/384면/12,900원



풍요로운 환상 속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 꼬집어

신경제는 전례 없이 많은 기회, 환상적인 구매조건, 뛰어난 상품, 다양한 투자 기회, 재능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한 노예'라는 역설적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고속 성장 경제, 그 풍요로운 환상 속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는 지은이의 눈은 잘 버린 비판의 칼날 그것이다. 신경제가 주는 여러 혜택이 결국 더 필사적인 삶, 불안감, 빈부격차와 사회적 분화현상의 심화라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더욱 심해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매달리게 되고, 신경제가 가져온 물질적 대가만큼 가족과의 삶, 우정,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일부가 사라지고 있다. 지은이는 신경제의 허와 실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데, 신경제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손실과 혜택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렇다면 신경제의 뒷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까. 지은이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삶을 단순화시키는 '개인적 선택'에서 그 해법을 찾는다. 하지만 신경제를 사회적인 선택의 맥락으로 파악해 '사회적 선택'의 길도 열어놓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또한 신경제가 던진 유혹의 덫에 걸려 있음을 뼈아프게 돌아보게 된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수입의 불균형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매달려야 하는 신경제하의 생존 법칙이 과연 '그들만의 리그'에 존재하는 법칙일까. —박옥순 기자